

# CEO Lounge

## 안철수 의장, “중소벤처와 미래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



안철수연구소의 이사회 의장인 안철수 교수가 5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KAIST의 석좌교수 및 안철수연구소의 CLO(Chief Learning Officer)로서 국내 중소, 벤처 산업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교수는 KAIST의 ‘비즈니스 이코노믹스’ 프로그램에서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가르칠 계획이며, 창업자들의 자서전, 인터뷰, 사례 연구 등을 바탕으로 토론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 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생 및 벤처 기업 경영자와 중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 이달의 무역인상 메타바이오메드 오석송 대표

‘제9회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 중견기업부문에서 메타바이오메드의 오석송 대표가 수상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치과용 기자재, 생분해성 봉합원사, 골수복제 생산 등 의료용 소재를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매출의 90% 이상을 세계 80개국에 자체상품으로 수출하고 있다.

## 한글과컴퓨터, 김수진 대표이사 단독선임



한글과컴퓨터(www.hancomsoft.com, 이하 한컴)가 김수진 대표이사를 단독 선임했다. 전임 백종진 사장은 한컴 상임고문으로 추대되면서 벤처산업협회장 일과 모빌리언스, 사이버패스 등의 경영에 전념하게 된다. 이로써 모빌리언스와 사이버패스 등은 프라임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돼 백종진 사장이 독자경영하게 된다. 김수진 대표이사는 만44세(1963년생)로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HP, 삼성전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마케팅을 담당했으며 엔씨소프트 태국 조인트 벤처인 엔씨트루에서 COO를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1월 COO(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 운영 책임자)로 한컴에 합류한 김 대표는 올해부터 각자대표이사로서 개발, 영업과 마케팅 전략에 관한 사업전반을 총괄해 왔다.

## 네오위즈인터넷, 허진호 대표이사 선임



네오위즈인터넷은 허진호 블루마인미디어 대표를 네오위즈인터넷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인터넷은 현 이기원 대표와 허진호 대표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허 대표는 네오위즈인터넷의 중장기 전략수립과 대외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이 대표는 사업운영과 내부경영을 총괄하게 된다. 허진호 신임 대표이사는 1994년 국내 최초의 민간 인터넷서비스업체(ISP) 아이네트 창업을 시작으로 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와 함께 해온 주역이다.

## 씬멀티미디어, 정창시 대표이사 선임

모바일 멀티미디어 전문기업 씬멀티미디어(www.thinmultimedia.co.kr)는 정창시 보광그룹 경영고문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정창시 대표이사는 현대그룹에서 20년 이상 영업 및 재무를 담당한 바 있다. 신임 정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씬멀티미디어는 제 2의 도약을 선언하고 글로벌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업으로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씬멀티미디어는 국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Wibro, IPTV 등 뉴미디어로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다윈텍, 김상철 소프트웨어 대표이사 선임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설계업체 다윈텍은 김상철 신임 대표이사를 포함해 5명의 이사를 선임했다. 신규 임원은 김상철 대표이사(소프트포럼 대표), 김한준 이사(소프트포럼 전무), 박갑록 이사(위지트 부회장), 김경래 사외이사(한일세미컴 대표), 전성열 사외이사(위지트 상무이사) 등 5명이다. 이에 앞서 김광식 전 대표이사는 지난 4월초 보유지분 26.65% 가운데 7.17%를 장내 매각하고 나머지 19.48%를 LCD장비 및 보안 솔루션 업체인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에 장외 매각한 바 있다.